

嶺南과 湖南, 그 연원을 찾아서

李 泳 鎬*

- I. 머리말
- II. 영남과 호남의 명칭
- III. 영남과 호남의 범위
- IV. 영남과 호남의 현재적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영남과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지역이다.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한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러면 영남과 호남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며 그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또 그 지역적 특징은 어떤 것일까?

嶺南이란 이름은 고려 성종 14년(995)에 처음 사용되었다. 전국을 10도로 편제하면서 불려진 嶺南道가 그것이다. 이는 당나라의 嶺南道에서 따온 것으로, 南嶺山脈 이남인 오늘날의 광둥, 광서, 운남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영남은 대개 竹嶺과 鳥嶺 이남의 경상도 지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leeyho@knu.ac.kr

전라도를 뜻하는 湖南 또한 중국에서 기원하였다. 당나라 시대 또는 5대 10국 시대에 湖南의 이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문헌에서 湖南 명칭의 사용 시기는 늦었다. 여기서는 『東國李相國集』에서 1195년 당시 관동이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삼국유사』 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와 그 모본이 된 眞表律師骨藏碑(1199년 건립)를 통해, 이 무렵에는 영남, 관동과 함께 호남의 명칭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영남과는 달리 호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湖의 의미를 김제의 碧骨堤나 제천 義林池, 錦江 등에 비정한 견해가 있었다. 처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외부 지명을 들여와 우리 국토에 적용시키려 한 데서 해석상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호를 금강으로 보고 호남을 금강 이남으로 본 ‘금강이남 설’에 주목하였다.

영남과 호남의 지형은 대조적이다. 여기서는 국내적인 차원과 함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영남의 지형을 이집트와 비교하고, 호남의 그것을 그리스와 비교해 보았다. 그리하여 영남을 관통하는 낙동강을 이집트의 나일강과 대비하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삼한시대 마한 소국과 비교해 보았다.

영남과 호남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영남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호남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영남과 호남에 대한 이 같은 거시적 이해가 두 지역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주제어

관동(關東), 그리스, 금강(錦江), 낙동강(洛東江), 영남(嶺南), 이집트, 호남(湖南)

I. 머리말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과 ‘영호남의 대화’란 이름으로 매년 몇 차례씩 상호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세미나, 워크숍, 공동학술대회가 그것이다. 이러한 행사 때마다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은 생각은 영남과 호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영남은 경상도, 호남은 전라도로 흔히 이해하지만, 그 이름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으며, 오늘날도 그 이름은 유효할까? 나아가 영호남이 상호 교류해야 할 필연성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의 제6회 공동학술대회 주제로 ‘영남 속의 호남인, 호남 속의 영남인’을 선정하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영남과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지역이다.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한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러면 영남과 호남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며, 그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또한 그 지역적 특징은 어떤 것일까?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하다. 어학이나 지명학, 지리학 분야에서 비교적 일찍 관심이 배풀어졌다면, 역사학 분야에서는 최근에야 검토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영남과 호남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그 발단은 중국의 지명을 빌려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명칭이 이른 시기 중국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영남은 원래 중국 南嶺山脈 이남의 땅이란 말이었다. 당나라 때에는 이 지역이 嶺南道의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다. 호남은 원래 중국의 洞庭湖 이남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지금의 湖南省 일대를 일컫던 말이었다. 그래서 이들 지명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嶺南·湖南이나 關東·關西·關北이란 이름을 쓰지 말자거나 토박이 우리말로 바꾸자는 제안이 그것이다.¹⁾ 타당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서 갑자기

1) 윤흥기, 「한국 땅 이름의 특징」, 『땅의 마음』, 사이언스 북스, 2011, 355쪽.

우리말로 모두 바꿀 수도 없거니와, 1천년 가까이 사용해 오면서 어느새 우리말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영남과 호남이란 이름은 그 자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영남과 호남의 명칭

고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4년 뒤인 940년(태조 23)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는 신라시대 군현의 명칭을 단순히 변경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체계를 새로이 정비한 것이다.²⁾ 성종 2년(983)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이는 중국 虞書의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³⁾ 楊州·廣州·忠州·淸州·公州·海州·晉州·尙州·全州·羅州·昇州·黃州에 설치된 목이 그것이다.⁴⁾ 이때 영남 지역에는 尙州牧과 晉州牧이 있었고, 호남 지역에는 全州牧과 羅州牧이 있었다.

성종 14년(995)에는 전국을 關內道·中原道(忠原道)·河南道·嶺南道·嶺東道·山南道·江南道·海陽道·朔方道·溟西道 등 10도로 편제하였다.⁵⁾ 이는 당나라 태종이 산천의 형편에 따라 전국을 10도로⁶⁾ 나눈 것을 본받아 만든 것이다.⁷⁾ 이에 영남 지역은 상주 중심의 嶺南道, 경주와 金州(김

2) 박종기, 「高麗 太祖 23年 郡縣改編에 관한 研究」, 『韓國史論』 19, 서울대, 1988;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尹京鎮, 「『高麗史』 地理志 고려초기 改號 기사의 자료적 기반과 정리 방식」, 『震檀學報』 115, 2012; 『高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2012.

3) 『고려사』 권3, 성종 2년 2월 戊子.

4) 『고려사』 권56-58, 지10-12, 지리1-3에서 확인되는 것은 8곳이며, 양주, 전주, 나주, 승주 4곳은 12州 節度使가 설치되는 지역에서 역으로 추정할 것이다. 윤경진, 「고려 界首官의 제도적 연원과 성립과정 -9州·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6, 서울대, 2005, 74-75쪽.

5)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고려사절요』 권2, 성종 문의대왕 14년 7월.

6) 關內道·河南道·河東道·河北道·山南道·隴右道·淮南道·江南道·劍南道·嶺南道 등이다. 『신당서』 권37, 지27, 지리1 序文.

해) 중심의 嶺東道, 진주 중심의 山南道로 삼분되고, 호남 지역은 전주 중심의 江南道와 광주 중심의 海陽道로 나누어졌다. 이때 처음으로 ‘嶺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였다.

현종(1009-1031) 무렵부터는 점차 전국이 5도와 양계로 개편되었다.⁸⁾ 楊廣道·慶尙道·全羅道·交州道·西海道와 東界·北界가 그것이다.⁹⁾ 이때 기존의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는 합쳐져 慶尙道가 되고, 강남도와 해양도는 합쳐져 全羅道가 되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름이 처음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도의 명칭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경상도는 예종 1년(1106)에 慶尙晉州道였다가, 명종 1년(1171)에 慶尙州道와 晉陝州道로 분리되고, 명종 16년(1186)에 합쳐져 慶尙州道가 되었다. 이후 신종 7년(1204)에 尙晉安東道, 그 뒤 慶尙晉安道를 거쳐 충숙왕 1년(1314)에 慶尙道로 굳어졌다.¹⁰⁾ 전라도는 현종 9년(1018)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¹⁾ 잠시 全晉羅州道,¹²⁾ 全羅州道를¹³⁾ 거쳐 조선시대에는 한 때 全南道, 光南道, 全光道 등으로도 불려졌다.¹⁴⁾ 그러나 고려시대의 도는 오늘날과 같은 상급 행정구획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嶺南’이란 이름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 당나라 시대의 嶺南道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곧 중국 南嶺山脈 이남의 땅으로 오늘날의 광둥,

7) 邊太燮, 「高麗 前期의 外官制」, 『韓國史研究』 2, 1968;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일조각, 1971, 125쪽.

8) 5도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도 개념의 다양성을 지적하면서 5도의 명칭이 예종대에 태동하여 고려 말에 윤곽이 잡힌다거나, 예종대에 형성되었다는 설, 현종 9년에서 예종대에 걸쳐 단계적으로 성립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윤경진, 「고려 전기 道の 다원적 편성과 5道の 성립」, 『東方學志』 135, 2006 참조). 이처럼 5도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명칭의 출현에 중점을 둔다.

9)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서문.

10)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11)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전라도.

12) 『고려사』 권10, 선종 4년 12월 己卯朔. 이때 진주는 전라도 관할이었다.

13) 『고려사』 권19, 명종 8년 춘정월 丁巳 등.

14) 『증보문헌비고』 권16, 輿地考4, 郡縣沿革2 全羅道.

광서, 운남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는 과정에서 어느덧 우리나라의 특정 지방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일반화되었다. 대개 竹嶺과 鳥嶺 이남의 경상도 지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湖南’이란 말 또한 우리나라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형에 따른 호남 명칭 자생 설을 주장한 견해가 있으나¹⁵⁾ 따르기 어렵다. 당에서는 廣德 2년(764)에 湖南節度使를 설치하였고, 907년에는 湖南節度使 馬殷이 唐末 5대 10국의 하나인 楚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 말 최치원의 글에서도 호남 지명을 사용한 예들을 찾을 수 있다.¹⁶⁾

‘嶺南’에 비해 ‘湖南’ 명칭의 사용 시기는 늦었다. 호남 별칭은 14세기 말인 고려 말~조선 초 무렵 卓光茂의 『景濂亭集』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¹⁷⁾ 그래서 호남 별칭의 사용은 여말선초로 봄이 일반적이고, 호남이 전라도라는 공식 명칭에 맞설 정도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조선 선조 무렵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고 한다.¹⁸⁾ 그러나 호남 별칭의 등장 시점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卓光茂의 『景濂亭集』보다 최소 100여 년 이상 앞선 시기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호남 용례는 1240년 경, 13세기 중엽 이전의 기록에 등장하는데, 천태종 승려인 靜明國師 天因(1205-1248)이 長興 支提山(天冠山)을 유람할 때 “湖南을 두루 다니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1304년에 죽은 洪侃의 글과 1309년 지어진 담양 출신 李晟의 시에서도 湖南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호남 별칭의 등장은 14세기

15)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지』 38-5, 2003, 697쪽.

조성욱, 「지명 ‘호남(湖南)’의 형성과 지리적 범위 변화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3, 2008, 207쪽.

16) 『桂苑筆耕集』 권8, 別紙 20수 「湖南閔頊尙書」; 동 권18, 書·狀·啓 「前湖南觀察巡官裴璿啓」. 진자는 『東文選』 권58, 書에 「上湖南閔頊尙書書」란 제목으로도 실려 있다.

17) 송일기, 「‘호남학연구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 설계」, 『도서관』 54-2, 국립중앙도서관, 1999, 76쪽.

18) 노기춘, 「湖南의 地域區分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40, 2018.

말~15세기 초가 아니라 13세기 중엽으로 150여 년 이상 그 연대를 올려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새롭게 기록으로 확인한 시기가 13세기 중엽이지만, 고려시대의 제반 조건으로 보아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사용됐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한다.¹⁹⁾

현재 영남과 호남 별칭의 사용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 연대가 올라갈 지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이규보가 지은 『東國李相國集』에 關東과 嶺南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을까 생각한다.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關東과 嶺南은 문집 속에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지명 별칭이라고 한다.²⁰⁾ 영남은 이미 영남도에서 나타나 문제가 없지만, 關東은 동 권5, 古律詩 44首 가운데 「次韻吳東閣世文呈誥院諸學士三百韻詩并序」에서 나타난다. 이규보 연보에 따르면 이 시는 그가 28세 때인 1195년(명종 25)에 지은 것이다.²¹⁾ 1195년 당시 관동이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우리에게 한국 고대불교문화사를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민족의 고전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 권4, 의해5에는 「關東楓岳鉢淵藪石記」가 실려 있다. 주석에 따르면, 이는 발연수의 주지인 瑩峯이 짓고 금나라 承安 4년 己未, 곧 고려 神宗 2년(1199)에 세운 비석의 내용이라고 한다. 곧 「關東楓岳鉢淵藪石記」는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면 용계리 발연사지에 있는 眞表律師骨藏碑의 내용을 無極이 줄여 『삼국유사』의 「眞表傳簡」 뒤에 끼워 넣은 것이다. 「진표전간」의 내용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표율사골장비에는 “關東楓岳山鉢淵藪開闢祖眞表律師眞身骨藏立石碑銘”으로 시작하는 비석 전문이 실려 있다.²²⁾

19) 조상현, 『전근대 ‘湖南’의 淵源과 認識』, 전남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45-48쪽; 「전라도 별칭 ‘호남(湖南)’의 연원(淵源)」, 『韓國思想과 文化』 91, 2018, 145-148쪽.

20)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지』 38-5, 2003, 689쪽의 <표2> 참조.

21) 김용선, 『이규보 연보』, 일조각, 2013, 54-55쪽.

“關東 楓岳(山) 鉢淵藪”에서 楓岳은 오늘날 북한의 金剛山을 말한다. 금강산은 신라시대에 霜岳으로 불렸다.²³⁾ 그러나 924년에 찬술되고 944년에 건립된 『寧越 興寧寺澄曉大師塔碑』에 “楓岳 長潭寺”가 나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 무렵에는 ‘풍악’으로도 일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원래의 금강산은 慶州의 北岳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북한의 금강산을 중시하면서 小金剛山으로 밀려났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²⁴⁾ 그러면 금강산이 소재한 關東은 어떨까?

지금까지 풍악 발연수가 존재한 關東 별칭을 주목한 이는 많지 않았다.²⁵⁾ 鉢淵藪 眞表律師骨藏碑는 『삼국유사』가 찬술되기 전인 1197년에 건립을 시작하여 1199년에 완성된 비문이었다. 이규보의 시문 외에 금석문자료에서 ‘關東’이 확인됨으로써 12세기 말 ‘관동’이 오늘날의 강원도 일대를²⁶⁾ 뜻하는 별칭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실해진 것이다. 물론 별칭의 사용이 관동에 한정된 것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무렵에는 경상도를 뜻하는 영남이나 강원도를 가리키는 관동뿐 아니라, 전라도를 지칭하는 ‘호남’ 별칭도 이미 사용되었다고 볼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²⁷⁾

22) 비석이 소재한 곳이 북한 땅이고, 비문도 탈락이 심하다. 탁본을 바탕으로 여러 판독을 교정한 것으로 金南允,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論叢』 78, 1997, 111-114쪽이 참고 된다.

23) 『삼국사기』 권32, 祭祀 小祀 “霜岳(高城郡)”.

24) 문경현 외, 『新羅王京五岳研究』, 경주시·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70쪽.

25) 『삼국유사』 여러 주석본 가운데서 “조선에서는 大關嶺의 땅을 關東이라 부른다. 대체로 지금의 江原道를 가리킨다.”(村上四男, 『三國遺事考証(下之二)』, 塙書房, 1995, 197쪽)라고 하거나, “大關嶺의 동쪽지방”(姜仁求 외, 『譯註 三國遺事』 IV, 이회, 2003, 171쪽)이라 한 것을 겨우 찾을 수 있다. 전거 제시가 없지만, 『燃藜室記述』 別集 권16, 地理典故 摠地理 등 조선 후기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지명 별칭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삼국유사』나 진표율사골장비의 ‘관동’ 자료를 주목하지 않았다.

26) 1349년(충정왕 1) 당시 鐵嶺關 동쪽의 江陵 등 여러 고을을 관동이라 한 기사가 주목된다. 李穀, 『稼亭集』 권5, 記 「東遊記」 “至正九年己丑之秋(중략) 二十六日, 躡鐵嶺關宿福靈縣. 鐵嶺, 國東之要害. 所謂一夫當關, 萬夫莫開者也. 故嶺以東江陵諸州, 謂之關東. 至元庚寅, 叛王乃顏之黨哈丹等賊, 奔北而東, 自開元諸郡關入關東. 國家遣萬戶羅裕等, 領其軍防護鐵關”.

27) 『고려사』에 문종 10년(1056) 關西, 關北, 關內 3道가 있었다거나, 명종 18년(1188)

Ⅲ. 영남과 호남의 범위

영남의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竹嶺과 鳥嶺 이남의 경상도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嶺南의 嶺을 단순한 고개의 의미보다는 산줄기, 산맥의 뜻으로 보아 오늘날의 소백산맥 남쪽 지역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²⁸⁾ 그러나 호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따라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도 호남 별칭에 대해서였다.

그 동안 제기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湖를 김제의 碧骨堤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제천 義林池, 錦江, 중국 지명의 이식 등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벽골제나 의림지 설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형원, 이규경 등이 주장한 것이다.²⁹⁾ 그 뒤 의림지 설은 이병도가, 금강 설은 이홍직이, 중국 지명 이식 설은 윤홍기가 각각 주장하였다.³⁰⁾ 이에 대해 범선규는 벽골제 설은 벽골제가 여말선초 당시 쇠락했거나 허물어져버린 상태였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의림지 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다 아는 상식이라고 치부한 점, 금강 설은 문헌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중국 지명 이식 설은 湖南省이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제도화한 것이 청나라 시대인 17세기 이후였다는 점에

關東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12세기말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탐구할 여지가 있다. 『고려사』 권7, 문종 10년 9월 甲申 “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安民甫, 爲關西·北關內三道撫問使” 및 동 권80, 식화, 진홀 水旱疫癘 賑貸制 “明宗十八年八月 “制曰, 近聞東北面兵馬使所奏, 關東諸城, 多遭水, 禾穀損傷, 人民漂溺, 僅存遺民, 被饑饉, 朕甚憫焉”.

28) 범선규, 「高麗와 朝鮮의 道名稱과 地方의 別稱 -지형과 도회지 발달의 관점에서-」, 『문화역사지리』 14-3, 2002, 99쪽.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지』 38-5, 2003, 693-696쪽.

29) 『礪溪隨錄』 권3, 田制後錄 上 堤堰 “今觀金堤之碧骨堤. 全羅忠淸之名爲湖南湖西. 由於此堤”.

『燃藜室記述』 別集 권16, 地理典故 摠地理 “以全羅道金堤郡碧骨堤湖分界 全羅道稱湖南 忠淸道稱湖西 一說 堤川有義林池湖 故稱湖西”.

30)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지』 38-5, 2003, 697쪽.

서 비판하고 있다.³¹⁾

일찍이 李乙浩는, “호남은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쳐서 부르는 말. 湖江(錦江) 이남의 지역이란 뜻이며, 湖中이라 한다’(李弘植 編, 『國史大事典』 下)라는 설과 ‘김제 벽골제의 남쪽을 湖南地方, 湖西地方이라 부른다’(상동서)라는 설이 있으나 碧骨堤 설은 너무 지나치게 내려와 있는 반면에 벽골제와 더불어 三韓에서 3대 水利施設의 하나인 義林堤 以南을 湖南이라 하고, 그의 이서를 湖西라 한다(이병도씨 설)는 설에 의하면, 호남지방의 개념은 충청북도 막까지 북위 37도 이북까지 치올라 간다.”고³²⁾ 하여 충청남북과 전라남북의 지역까지를 호남의 테두리 안으로 보았다.

나아가 ‘백제의 후예로서의 호남’의 개념은 더 위로 올라가며, 백제문화는 廣州-南漢山城-公州-扶餘 선상에서 찾아야 하고, 문화권의 형성과정에서 볼 때 호남의 개념은 義林堤보다도 훨씬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³³⁾ 이 견해는 호남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고 한강을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병도는 鳥嶺·竹嶺 이남의 영남과 마찬가지로 충청도 이남의 全羅南北道가 湖南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라 하여, 호남을 전라남북도로 이해하였던 것이다.³⁴⁾

한편에서는 호남의 지리적 범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호남에서 湖의 기준을 검토해본 결과 호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리적 범위가 변화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호남=전라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향과 지역적 장애 측면을 고려하면 호남 3湖(碧骨堤, 訥堤, 黃登堤)보다는 금강을 기준으로 그 남쪽지역이라는 의미로서 호남이 타당성을 가진다. 둘

31) 앞과 같음.

32) 李乙浩, 「湖南文化의 概觀 -하나의 序論으로서-」, 『湖南文化研究』 2, 1964, 1쪽; 박만규·나경수 편,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출판부, 1999, 3쪽.

33) 李乙浩, 「湖南文化의 概觀」, 『湖南文化研究』 2, 1964, 2쪽; 박만규·나경수 편, 『호남전통문화론』, 1999, 4쪽.

34) 李丙燾, 「地理 歷史上으로 본 湖南」, 『湖南文化研究』 2, 1964, 15쪽; 박만규·나경수 편, 『호남전통문화론』, 1999, 18쪽.

째, 호남과 호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리적 기준은 없다. 두 지명은 각각 다른 기준점을 기준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인식하고 있는 호남=전라도, 호서=충청도와 같은 지리적 개념이 아닌 문화적 개념으로서 두 지명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조선 초기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호남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가 각각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 때에는 기준점의 남쪽이라는 지리적 의미가 중요했으나 조선시대에는 문화권 개념으로 정착되면서 지리적 범위도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명 등장 시기가 고려시대이고 조선시대 이후 지리적 범위 변화가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호남 지방의 호의 기준은 한강일 것이라고 하였다.³⁵⁾

위에서 호남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시대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한다.³⁶⁾ 이러한 현상은 처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외부 지명을 들여와 우리 국토에 적용시키려 한 데서 생겨난 혼란이 아닐까 생각된다. 호남 용어는 청대가 아닌 당나라 시대 또는 5대 10국 시대에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호남 명칭은 처음은 중국의 지명이었지만³⁷⁾ 뒤에는 우리의 지명으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호를 금강으로 보고 호남을 금강 이남으로 본 ‘금강이남 설’에³⁸⁾ 주목하고자 한다.

35) 조성욱, 「지명 ‘호남(湖南)’의 형성과 지리적 범위 변화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3, 2008. 최근 이 같은 요지를 다시 발표하였다. 조성욱, 「호남(湖南)의 기준점 호(湖)는 어디일까?」, 『사람과 언론』 5, 2019.

36) 朴煥圭, 「朝鮮 前期 湖南詩壇의 研究」 『湖南文化研究』 25, 1997, 30-31쪽에서는 호남을 전라도로 한정하면서 한강 기준 설에 부정적이다.

37) 조상현은 호남 별칭을 중국 지명을 무조건적으로 이식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지명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완곡하지만 이식 설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조상현, 『전근대 ‘湖南’의 淵源과 認識』, 전남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81쪽 참조.

38) 權赫在, 『韓國地理 -우리 國土의 自然과 人文-(제3판)』, 법문사, 2003, 14쪽.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지』 38-5, 2003, 698쪽.

IV. 영남과 호남의 현재적 의미

영남과 호남의 지형은 대조적이다. 일찍이 두계 이병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상도는 낙동강이 한 가운데를 지나가 모든 支流가 거기로 유입되기 때문에 영남 지역이 대부분 낙동강 유역에 속한다. 북으로 태백·소백산맥이 있고, 서와 남으로는 智異山脈이 가로막고, 또 동해안에도 산맥이 있어서 영남은 마치 항아리 속과 같다. 그러나 호남은 이와 정반대다. 그 지형상 가운데가 불쑥 나와 鎭江과 같은 大江은 북으로 역류하여 충청지방에 들어와 다시 서로 꺾여 공주, 부여를 거쳐 바다로 들어가며, 또 萬頃江, 東津江은 큰 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쪽으로 흐른다. 榮山江 또한 서쪽으로 흐르고, 蟾津江은 동남쪽으로 흐른다.

경상도와 같이 큰 산맥이 周圍로 막혀서 마치 항아리 속 같이 된 지역은 옛날에 교통이 불편해서 외적 교섭이 드물고 외부와의 人文交流가 잦지 못한 까닭에 인성도 보수적이고 무뚝뚝하고 완고해서 動적인 면보다는 靜적인 면이 많다. 그러나 산수가 흩어진 개방적인 지역은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고 외부와의 교섭도 빈번하여 인성도 그만큼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에 능하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은 펍 부드럽고 외교나 사교에 능하여 경상도와는 다른 면이 많다고 하였다. 곧 영남과 호남은 같은 남부 지역이지만, 하나는 嶺東的 성격을 가지고, 하나는 嶺西的 성격을 가졌다고 하였다.³⁹⁾

한국고대사학자이자 풍수지리에 밝은 학자답게 영남과 호남의 지형과 사람들의 기질을 아울러서 설명하였다고 하겠다. 현재도 영남과 호남을 대비시켜 이보다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듯하다. 역사와 지리가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그렇다고 지리가 역사를 지배하거나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처한 현실보다 이에 대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⁴⁰⁾

39) 李丙燾, 「地理 歷史上으로 본 湖南」『湖南文化研究』 2, 1964, 17쪽; 박만규·나경수 편, 『호남전통문화론』, 1999, 20쪽.

40) 지리적 조건은 역사에 작용한 요인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것이 역사를 좌우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地理的 決定論’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사학계의 지리적 결정론

그렇지만 우선 양자 간의 이러한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두 지역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영남과 호남을 국내로만 한정해 이해하기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어떨까? 비슷한 지형과 그곳에서 발달한 문화를 통해 영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영남은 이집트와 비교할 수 있겠다.⁴¹⁾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서 남북을 관통하며 길게 흐르는 강이 나일 강이다. 나일 강의 길이는 6,741k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한다. 나일 강의 지류는 2개인데, 아프리카 중앙부 빅토리아 호수 일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백나일이라 하고, 아비시니아 고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청나일이라 한다. 백나일은 실로 광대하여 강폭은 좁은 곳이 500m, 넓은 곳이 거의 1km에 달한다. 이 두 개의 원류가 수단의 카르툼 근처에서 합류해 큰 나일 강을 이루면서 이집트 영내로 흘러든다.

카르툼과 아스완 사이에는 6개의 폭포가 있다. 이 중 가장 하류에 있는 것이 제1폭포인 아스완이다. 아스완에서 지중해까지의 거리는 1,200km이다. 그러나 아스완을 지나면 고도 차이는 90m밖에 되지 않아서 나일 강은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스완에서 카이로 부근까지 흐르는 강 유역이 이른바 나일 계곡으로, 나일 강은 그 가운데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천천히 흐른다. 먼 거리를 흘러온 나일 강은 내륙의 수도 카이로에서 하류로 가면서 삼각주(델타)를 형성하였다. 지중해 연안에는 알렉산드리아, 로제타, 포트사이드 등의 주요 항구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에서 발원하여 영남의 중앙 저지대를 통과하여 남해로 흘러든다. 본류의 길이는 515.15km로서 나일 강의 그

비판은 일찍이 손진태가 제기한 이래 식민주의 사관에서의 ‘타율성 이론’ 또는 ‘반도적 성격론’과 관련하여 전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 된다.

김수태, 「손진태의 식민주의사관 비판」,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李基白, 「半島의 性格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1, 1987; 『韓國史像의 再構成』, 일조각, 1991.

41) 이하 이집트에 대한 서술은 이영호, 「나일 강의 나라, 이집트를 가다」, 『복현사람』 29, 2011, 105-106쪽을 참고하였다.

것에 비할 바 아니다. 나일 삼각주는 해안의 동쪽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 포트사이드까지의 거리가 240km, 카이로에서 북쪽 해안까지의 남북간의 거리가 대략 160km 정도로서 여기에 이집트 인구 8천만의 대부분이 몰려 살고 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르도투스는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다.”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그에 앞서 그리스의 지방도시 밀레투스 출신의 헤카타이오스가 맨 먼저 말했다고도 한다. 또한 이집트에는 “나일 강을 다스리는 자가 이집트를 다스린다.”라는 말도 있다. 이는 그만큼 이집트 역사에서 나일 강의 비중이 컸음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아멘신화>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서술되어 있다고 한다. “이집트란 나일 강이 흐르는 곳이며, 이집트인이란 나일 강의 물을 마시는 자이다.”라고.⁴²⁾

나일 강은 기다란 나일 계곡의 말미에서 삼각주를 형성하였지만, 영남은 나일 삼각주보다 면적이 넓고, 이를 관통하는 낙동강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도도히 흐르는 本流에 수많은 支流와 支流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그래서 무수한 충적평야에 마을이 형성되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총 유역은 2만 3,860km²로서 남한 면적의 1/4, 영남 면적의 3/4에 해당한다. 강을 따라 남으로 가면서 안동, 상주, 구미, 대구, 밀양, 김해, 부산 등 주요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영남과 낙동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영남이야말로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이고, 영남인이란 낙동강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해도 좋겠다.

호남의 지리적 환경은 그리스와 비교하면 어떨까 한다.⁴³⁾ 그리스는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의 남단에 위치하며 반도인 본토와 주변에 산재

42) 요시무라 사쿠지 지음·김이경 옮김,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이집트 역사기행』, 서해문집, 2002, 16쪽.

43) 그리스에 대한 개황은 토머스 R. 마틴 지음·이종인 옮김, 『고대 그리스사』, 책과 함께, 2015; 맥세계사편찬위원회 편, 『그리스사』, 느낌이 있는 책, 2014 등 여러 개설서를 참고하였다.

한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토 서쪽은 이오니아 해, 동쪽과 북동쪽은 에게 해, 남쪽은 크레타 해로 둘러싸여 있다. 넓은 지중해에 펼쳐진 그리스의 3,100여 개 섬 가운데 일찍부터 미노아 문명을 이룩했던 크레타(Crete) 섬이 가장 크다. 이점에서 북부와 동부는 육지로, 서부와 남부는 바다로 이루어지고 2,300개 이상의 섬이 산재하는 호남과 비교된다. 호남의 섬은 고려 삼별초의 항쟁지 珍島와 신라시대 청해진이 설치된 장보고의 연고지 莞島 순으로 크다. 전통시대 전라도에 편제된 한국 최대의 섬 濟州島도 같은 범주에 넣을 수도 있겠다.

그리스는 전국토의 80% 이상이 산지와 구릉으로 유럽에서 가장 지형이 복잡한 곳이다. 서부에 그리스의 중추적 산맥인 핀더스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는 고도 약 1000-1500m이며, 여기서 여러 줄기가 갈라지고 산간 분지가 생겨 복잡한 지형을 이룬다. 그리스의 최고봉인 2,919m의 올림포스 산은 동쪽 지맥에 솟아 있다. 또한 동부 지역에는 로도페 산맥이 동서로 달린다. 호남은 북쪽에 금강이 있고, 노령산맥으로 전남과 전북이 경계를 이룬다. 또한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달리면서 경계를 이룬다. 특히 전남·전북·경남의 경계지대에는 남한의 두 번째 높은 산이자 영호남 최고봉인 지리산 天王峯(1915m)이 우뚝 솟아 있다. 호남은 영남처럼 특정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고 섬진강, 보성강, 영산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다양한 강과 해양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그리스 본토에서는 두 산맥에서 많은 지맥이 갈라지고 그 사이 사이에 분지가 생겼다. 산맥에서 파생한 여러 산간 분지들은 상호 고립적으로 존재하여 고대 그리스시대 분지 하나가 하나의 정치 단위를 이루었다. 아테네, 스파르타, 밀레투스, 테베 등 100개 이상의 도시국가(Polis)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일설에는 그 수가 450개를 넘었다고도 한다. 그래서 그리스는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지 않았다. 기원전 5세기에는 이들 도시국가가 동맹하여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테네를 중심으로 학문과 예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 동맹군이 스파르타 동맹군

에게 패배하였다. 그 후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리스 북부 테살리에 있는 올림포스 산은 매우 높아서 그 꼭대기는 항상 구름에 덮여 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영봉에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세력이 있는 신은 신들의 왕 제우스를 비롯하여 아폴론, 헤라, 포세이돈 등 ‘올림포스 12신’이었다. 이들은 모두 제우스의 형제자매들이나 자녀들이었다.

호남은 삼한시대 마한의 땅이었다. 삼한은 소국 연맹체로서 마한 54국, 진한 12국, 변한 12국으로 이루어졌다. 마한이 진한이나 변한보다 월등히 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경기, 충청 일대까지 포함하였으므로 영역이 넓었다. 또한 소국의 규모도 마한이 진한이나 변한보다 컸다. 큰 나라는 만여 家, 작은 나라는 수천 家로서 모두 10여만 戶였으나, 진·변한은 대국 4~5천가, 소국 600~700가로서 모두 4~5만 호였다. 마한 소국들은 대체로 평야지대에 분포하여 그리스의 도시국가처럼 높은 산이나 분지로서 구분되지 않았다. 낮은 구릉성 산지와 하천으로 나뉘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⁴⁴⁾

마한 소국의 國邑에는 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天君이 있었다. 또한 蘇塗라는 別邑이 있어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도망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적질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⁴⁵⁾ 이는 정치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신성지역이 존재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진한과 변한도 비슷할 것이지만, 유독 마한 소국의 풍속으로 전하는 데서 그리스의 神殿과 諸神 숭배를 연상케 한다.

44) 마한을 호남 연혁의 시작으로 삼는데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호남이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마한이나 백제, 후백제와 같은 나라들의 정보를 호남 관련 정보로 취급할 수 없다는 해석이 그것이다(조상현, 『전근대 ‘湖南’의 淵源과 認識』, 전남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10쪽 및 13-25쪽).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이들 자료는 편린이라도 소중하며, 호남문화의 기원으로서 마땅히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韓(馬韓).

그리스는 섬이 많고 스스로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해양문화가 발달하였다. 전영토의 1/5을 차지하는 3,100여 개의 섬들과 총길이 15,000km를 넘는 울퉁불퉁한 해안선을 가진 그리스의 경관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호남은 우리나라 3,215개의 섬 가운데 72%인 2,319개가 몰려 있어 도서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그리스의 저지는 전체면적의 1/4에 못 미치며 그 대부분도 에게 해에 연해 있는 해안 평야였다. 그러나 이 점은 호남이 우리나라 제일의 곡창으로 평야지대인 것과는 약간 다르다,

이상으로 영남과 호남의 현재적 특징을 지형과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이집트와 그리스에 비교해보았다. 영남이 이집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 호남은 그리스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이집트와 그리스는 영호남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영남과 호남을 한반도라는 굴레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해해보려 하였다.

V. 맺음말

嶺南이란 이름은 고려 성종 14년(995) 처음 사용되었다. 전국을 10도로 편제하면서 사용된 嶺南道가 그것이다. 이는 당나라의 嶺南道에서 따온 것으로, 南嶺山脈 이남인 오늘날의 광둥, 광서, 운남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영남은 대개 竹嶺과 鳥嶺 이남의 경상도 지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전라도를 뜻하는 湖南 또한 중국에서 기원하였다. 당나라 시대 또는 5대 10국 시대에 호남의 이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문헌에서 湖南 명칭의 사용 시기는 늦었다. 14세기 말인 고려 말~조선 초 무렵 처음 등장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13세기 중엽으로 이해하면서 이보다 앞선 시기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東國李相國集』에서 1195년 당시 관동이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의 별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삼국유사』 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와 그 모본이 된 眞表律師骨藏碑(1199년 건립)를 통해 이 무렵에는 영남, 관동과 함께 호남의 명칭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보았다.

영남과는 달리 호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호남의 湖의 의미를 김계의 碧骨堤나 제천 義林池, 錦江 등에 비정한 견해가 있었다. 처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외부 지명을 들여와 우리 국토에 적용시키려 한 데서 해석의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호를 금강으로 보고 호남을 금강이남으로 본 ‘금강이남 설’에 주목하였다.

영남과 호남의 지형은 대조적이다. 여기서는 국내적인 차원과 함께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영남의 지형을 이집트와 비교하고, 호남의 그것을 그리스와 비교해 보았다. 영남을 관통하는 낙동강을 이집트의 나일 강과 대비해 보았다. 낙동강은 남북으로 흐르는 本流에 수많은 支流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무수한 충적평야에 마을이 형성되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리하여 “영남이야말로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이고, 영남 인이란 낙동강의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해 보았다.

고대 그리스는 서부의 핀더스 산맥과 동부의 로도페 산맥이 형성한 산간 분지에 100여 개의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 또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12신’이 유명하였다. 호남은 삼한시대 마한의 땅이었다. 마한은 진한이나 변한보다 월등히 많은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마한 소국에는 天君과 蘇塗가 있어 귀신을 섬겼다. 이점 그리스의 신전과 諸神을 연상케 한다. 또한 그리스가 3면이 바다이고 해양문화가 발달하였다면, 호남 또한 서부와 남부가 바다이고 남서부 지역에 수많은 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영남과 호남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성격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영남에서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호남 또한 마찬가지다. 영남 전통문화의 중심이 대구와 경북이었다면, 호남의 문화적 중심은 전주와 나

주, 광주일 것이다.⁴⁶⁾ 영남과 호남에 대한 이 같은 거시적 이해가 두 지역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46) 湖南文化를 南道文化, 全南文化라 한 것을 볼 수 있다. 박만규·나경수 편, 『호남전통 문화론』, 1999에 실린 20편의 글 가운데 제목에 湖南이라 한 것 8편, 南道라 한 것 5편, 全南이라 한 것 3편, 기타 4편이다. 남도문화를 全羅南北道 문화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全羅南道만의 문화로 이해하기도 한다. 전주와 나주가 전통시대 호남의 중심이었다면, 광주는 근현대의 중심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가.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桂苑筆耕集』, 『東文選』, 『磻溪隨錄』, 『燃藜室記述』, 『增補文獻備考』, 『三國志』, 『新唐書』.

나. 단행본

- 姜仁求 외, 『譯註 三國遺事』 IV, 이희, 2003.
權赫在, 『韓國地理 -우리 國土의 自然과 人文-(제3판)』, 법문사, 2003.
김용선, 『이규보 연보』, 일조각, 2013.
문경현 외, 『新羅王京五岳研究』, 경주시·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박만규·나경수 편,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학교출판부, 1999.
박종기,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일조각, 1971.
尹京鎭, 『高麗史 地理志의 分析과 補正』, 여유당, 2012.
윤홍기, 『땅의 마음』, 사이언스 북스, 2011.
李基白, 『韓國史像의 再構成』, 일조각, 1991.
村上四男, 『三國遺事考証(下之二)』, 塙書房, 1995.
맥세계사편찬위원회 편, 『그리스사』, 느낌이 있는 책, 2014.
요시무라 사쿠지 지음·김이경 옮김, 『고고학자와 함께하는 이집트 역사기행』, 서해문집, 2002.
토머스 R. 마틴 지음·이종인 옮김, 『고대 그리스사』, 책과 함께, 2015.

다. 논문

- 金南允,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論叢』 78, 1997.
김수태, 「손진태의 식민주의사관 비판」, 『吉玄益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1996.
노기춘, 「湖南의 地域區分에 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40, 2018.
朴俊圭, 「朝鮮 前期 湖南詩壇의 研究」, 『湖南文化研究』 25, 1997.
범선규, 「高麗와 朝鮮의 道名稱과 地方의 別稱 -지형과 도회지 발달의 관점에서-」, 『문화역사지리』 14-3, 2002.

- 범선규, 「'조선 8도'의 별칭과 지형의 관련성」, 『대한지리학회지』 38-5, 2003.
- 송일기, 「'호남학연구정보'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 설계」, 『도서관』 54-2, 국립중앙도서관, 1999.
- 윤경진, 「고려 界首官의 제도적 연원과 성립과정 -9州·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36, 서울대, 2005.
- 윤경진, 「고려 전기 道の 다원적 편성과 5道の 성립」, 『東方學志』 135, 2006.
- 李丙燾, 「地理 歷史上으로 본 湖南」, 『湖南文化研究』 2, 1964.
- 이영호, 「나일 강의 나라, 이집트를 가다」, 『복현사림』 29, 2011.
- 李乙浩, 「湖南文化의 概觀 -하나의 序論으로서-」, 『湖南文化研究』 2, 1964.
- 조상현, 『전근대 '湖南'의 淵源과 認識』, 전남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조상현, 「전라도 별칭 '호남(湖南)'의 연원(淵源)」, 『韓國思想과 文化』 91, 2018.
- 조성욱, 「지명 '호남(湖南)'의 형성과 지리적 범위 변화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3, 2008.
- 조성욱, 「호남(湖南)의 기준점 호(湖)는 어디일까?」, 『사람과 언론』 5, 2019.

Tracing the Origins of "Yeongnam" and "Honam"

Lee, Young-ho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have distinc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 Korea. In addition, they have had their own peculiar cultur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What regions have been physically designated as “Yeongnam” and “Honam”? What did the names originate in?

The name of Yeongnam was first used in 995 (the 14th reign year of Goryeo King Seongjong), when the whole Goryeo territory was divided into 10 circuits (do) and the Yeongnam-do was created. Korean “Yeongnam” was named after the Chinese Tang dynasty’s Lingnan Province. In Korea, Yeongnam has been meant by the Gyeongsang region south of the Juk-ryeong and Jo-ryeong passes. The name of “Honam,” which has been meant by the Jeolla region, also originated in China’s Hunan Province. Korean documentary records demonstrate that the name of “Honam” was used later than that of “Yeongnam.” This study has examined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epigraph on the stele of Buddhist monk Jinpyo and supposed that around 1199 the name of Honam was used along with those of Yeongnam and Gwandong. Unlike the case of Yeongnam, regarding the definition of Honam, a divergence of views

has emerged. This study understands it as an interpretational problem of how Goryeo introduced a Chinese name and used it to name a certain region. Indeed, Goryeo did not name specific regions on the basis of a fixed principle.

The Yeongnam and Honam regions have contraste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has compared the Yeongnam region to Egypt and the Honam region to Greece. The Nakdong River that goes the way across the Yeongnam region is compared to the Nile River of Egypt; Mahan's small "states" during the Samhan (three Han Federations) period to poleis of ancient Greece. Both Yeongnam and Honam regions are far from geographical, cultural homogeneity respectively. Within the regions exist geographical and cultural disparities. This study hopes that this historical comprehension of Yeongnam and Honam would serv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inhabitants and development of the two regions.

keywords :

Egypt, Geum River, Greece, Gwandong, Honam, Nakdong River, Yeongnam

